

## 대만 복구 수련자들, 사부님 은혜에 감사



▲ 두 손 모아 사부님께 문안을 올리는 대만 복구 대법체자들.

[밍후이왕]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하늘 높이 떠올라 연일 추운 겨울을 몰아냈다. 계묘년을 맞아 1월 8일 아침 대만 복구 파룬궁수련자들은 법공부와 교류를 마친 뒤 반차오(板橋) 제 2 운동장에 모여 두 손을 모으고 일제히 외쳤다. “사부님 새해 즐겁게 보내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하늘높이 울려 퍼지는 수련생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사부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였다.

###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인생

17년간 수련한 징원(敬雯)은 교류에서 처음에는 수련자들이 거리에서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후 파룬궁 소개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어머니와 자신에게 법을 배울 기회를 심어줬다고 전했다.

2년 후 어느 날, 징원은 날이 밝기도 전에 어머니가 이미 집에 안 계신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

니 아침 일찍부터 파룬궁 연공을 하러 가셨다. 징원은 말했다. “어머니는 대법을 배우신 후 좋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전법륜(轉法輪)’을 소개하며 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징원은 9일 학습반(리홍쯔 사부님의 9일 설법 강의)에 참가했다. 징원은 회상했다. “9일 학습반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발뻘가 부러졌어요. 학습반에서 사부님께서 결가부좌를 하시는 걸 보고 기왕에 사부님께서 결가부좌를 하셨으니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뜻밖에도 제가 결가부좌를 하고 9일 학습반을 마쳤을 때 다친 발도 다 나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수련에 들어간 징원의 심신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징원은 말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3학년 때 방광통, 멀미 등 병으로 거의 365일 내내 감기에 걸렸으며 머리카락과 손톱을 제외하고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련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져 건강보험 카드는 스케일링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 외에도 파룬따파가 징원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놀라움은 마음가짐의 변화였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가족 관계, 친지들 사이, 심지어 인생의 추구까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어요.”

새해를 맞아 징원은 사부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사부님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저에게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 생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주셨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사부님께서 수련과 정신을 막론하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생애 대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천안문은 “가장 큰 촬영막” 이다

[ 밍후이왕 ] 2001 년 1 월 23 일 , 선달 그믐날 천안문광장에서 '분신자살' 의 불길 이 타오르자 중공은 황당하게도 파룬궁 수련생들의 소행이라고 했다 . 또 CCTV '초점방담'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분신자살' 영상은 허점투성이라 어떤 사람들은 TV 화면만 보고도 조작 단서를 찾아냈다 .

## 5 백도 고온에도 편히 앉아 있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알다시피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5 백도 이상 올라간다 . 5 백도 이상의 고온이 아니라 섭씨 100 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그런데 왕진동 (王進東) 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태산처럼 꿈쩍 없이 앉아 있는데 누가 이를 믿을 수 있는가 ?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다 : “ 요리할 때 뜨거운 기름이 팔에 살짝 닿기만 해도 모두 펄쩍 뛰고 난리가 난다 . 저 '분신자살' 이 정말이라면 왕진동은 벌써 천안문광장에서 이리저리 뛰면서 난리가 났어야 한다 . 영화로 찍어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 ”

## 5 백도 고온에 타지 않는 플라스틱 병

'분신자살' 을 한 왕진동의 옷은 큰 불에 다 '타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마치 새 상품처럼 깨끗했다 . 또 가장 불에 타기 쉬운 그의 머리카락도 완벽했고 손상이 없었다 .

어떤 사람이 실험해 봤는데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 초면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 7 초면 수축되어 변형이 되며 10 초면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변한다 . 설마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플라스틱병은 다른 특수한 재료로 만든 것이

란 말인가 ?

## '추가촬영' 을 실행한 기자

왕진동의 '사기분신' 이 탄로 나자 심지어 '분신자살' 사건 가담자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취재했던 여기자 리위창 (李玉強) 역시 어쩔 수 없이 사기극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002 년 초 , 하북성 '법제교육센터' 에서 리위창이 불법으로 이곳에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과 소위 '좌담회' 를 가졌다 . 당시 한 파룬궁 수련생이 “ 왕진동 다리 사이의 플라스틱병은 왜 불에 타지 않는가 ? ” 라고 묻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상황으로 토론했다 . “ 음료수병은 그들이 넣어 놓은 것이고 이 장면은 나중에 추가로 촬영한 겁니다 . ” 그녀는 또 “ 이렇게 탄로 날 것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찍지 않았을 거예요 . ” 라고 해명했다 .

## 미리 준비된 소방장비

2001 년 2 월 16 일 , '북경만보 (北京晚報)' 보도에 따르면 '분신자살' 자 한 사람의 몸에 붙은 불을 3~4 명의 경찰이 껐다고 했다 . 그렇다면 5 명의 '분신자살' 자 몸에 붙은 불을 끄는데 몇 개의 소화기가 있어야 하는가 ?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 경찰을 누가 본적이 있는가 ?

호주의 '디 에이 지 (The Age)' 신문은 CCTV '분신자살'



영상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 이 신문은 경찰 측이 미리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90 초 안에 대량의 소방장비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가 ? 라고 했다 .

확실한 것은 소화기와 소화장비가 현장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2012 년 내막을 아는 한 료병사람은 “ 내 친구 하나가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장경찰 소대장이었어요 . 그 친구가 당시 자신도 그 사건 '예행연'에 참여했고 소화기를 들고 금수교 아래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으며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내게 말했어요 . ” 라고 했다 .

## 돌발사건임에도 안정적이고 깨끗한 화면

'분신자살' 은 돌발적인 사건임에도 CCTV 기자가 찍은 화면은 오히려 아주 안정적이고 깨끗하다 . 아울러 카메라 앵글이 사건 전개에 따라 이동하는데 원경은 물론이고 근경과 심지어 확대화면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 설마 이것이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란 말인가 ?

이상의 각종 허점에서 '천안문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강택민 집단이 연출한 사기극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 마치 연에게 인사의 말처럼 “ 천안문은 '가장 큰 촬영막' 이다 . ”

# ‘구자 진언’이 성공적으로 역병을 항제한 의학 연구

[ 명후이왕 ] 2020 년 9 월 17 일 , 한부의 < 신종코로나병독 백신연발의 곤경과 출로에 대한 사고 >란 문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 전 스위스 노바르티스사 고급 전염병 의학 박사 동위홍 (董宇红) 과 미국 전 육군 미생물학 연구원 Walter Reed 육군연구소 병독계 실험실주임 린샤오쉬 (林晓旭) 박사 두사람이 협력한 이 논문은 병독학 , 면역학의 시점에서 현대과학이 인체 , 생명 , 물질 인식에서의 국한성과 백신개발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

이 논문은 백신외의 새로운 출로를 탐구했다 : “최근 우리가 하나의 ‘구자 진언’의 회고성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 6 개국 , 6 개 인종 36 명 무한 폐렴 병독 감염자를 분석한데 따르면 감염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거나 , 혹은 병원에서 포기했거나 , 혹은 약물치료가 무효가 되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성심

껏 ‘구자 진언’\_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찌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넘한뒤 현저하고 빠른 임상개선 효과를 보았다 . 특히 중병 (입원) 환자 11 명의 개선 정도는 인심을 상당히 고무시켰다 . 종합분석에서 모두 신기한 효과는 병원 혹은 약물치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구자 진언’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다 .”

안례 17: 온 가족 30 여명 중 사촌형이 감염됐다 . 그는 아들과 손녀의 밀접한 접촉자이며 또 가족 20 여명이 사촌형과 함께 식사하고 , 말을 나누었기에 모두 밀접한 접촉자였다 . 한집식구들이 모두 ‘구자 진언’을 넘해 모두 무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다 .

안례 23: 한집의 형제 2 명이 감염됐다 . 온집 식구 20 여명은 매일 함께 식사하며 밀접히 접촉했기에 아주 공포를 느꼈다 . 후에 친구의 소개로 ‘구자 진언’을 넘했는데 모두 감염 되지 않았다 .

안례 25: 이집의 보모가 감염

됐다 . 보모와 주인집 은 가족이 친구의 소개로 ‘구자 진언’을 넘하자 모두 무사했다 .

일찍 2005 년 미국 베럴의 학원 과학자들은 의학영역권 위대체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 한무리 파룬궁수련자의 혈액 백세포로 실험을 진행하여 증실한 결과 , 일반적인 건강인과 비교할때 파룬궁수련자의 기중성 백세포는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뚜렷이 증가됐고 , 병독 방어 관련 조절유전자가 선명하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 각종 외래병독과 세포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면역력이 있다 .

동위홍과 린샤오쉬 두 의학전문가는 “사람들이 성심껏 ‘구자 진언’을 넘 할때면 우주의 에너지장 (能量场)에서 공진 (共振)이 발생하여 면역력을 증가하고 자신을 보호해 병독의 감염을 받지 않게 한다 .”고 했다 .

## 경시 ‘천안문 분신자살’ 제작자들의 현재 상황

[ 명후이왕 ] 전 중공 공안부 부부장 류징 (刘京) , 전 중공 라디오 방송총국 부국장 리동성 (李东生) , 전 중공 신화사 사장 텐충밍 (田聪明) , 전 중공 CCTV “신문연보 (新闻联播)” 앵커 뤼징 (罗京) , 전 중공 CCTV “동방시공 (东方时空)” 항목 주관 천멍 (陈虻) , 이 5 명은 모두 액운을 면치 못했다 . 이 5 명은 모두 공동한 특점이 있다 \_ 20 년전 중공이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사건 제작에 참여했다 .

2001 년 1 월 23 일 , 설날 그믐날 중공은 5 명 파룬궁수련생이 천안문광장에서 ‘분신자살’

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세기 가짜 사건이었음을 증명했다 .

류징은 호두암 (喉癌)에 걸렸다 . 현재 소식이 끊겨 생사불명이다 . 류징은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꾸미고 , 증오를 선동하는 선전을 실시했다 .

리동성 , 2016 년 1 월 12 일 , 15 년 판결을 받았다 . 리동성은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의 주요 제작인 중의 하나다 . 또 CCTV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제작에 친히 참가하고 , 감독했으며 , 전세계로 전파하는 전부 비밀과정에 참가했다 .

텐충밍 , 2017 년 병으로 사망했다 . 그의 임기내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한후 신화사는 방송규칙을 어기고 사건 발생 2 시간후 전세계에 영어 뉴스를 발표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

뤼징 , 2008 년 6 월 5 일 린파암으로 사망했으며 , 사망하기 전 구두와 허계양으로 고통받았다 . 뤼징은 생전에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 사건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앵커다 .

천멍 , 2008 년 12 월 23 일 위암으로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불과 47 세였다 . 그는 CCTV ‘천안문 분신자살’사기극 제작자이다 .



[ 밍후이왕 ] 사람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은 양의의 이론과 중의의 해석 외에 또 근본 원인이 있다.

### 1. 이가구 (李可久) 의 할머니

청나라 고서인 ‘소두봉 (小豆棚)’에는 이가구의 할머니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말을 하여 현생의 가족들에게 전생의 상황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가구의 할머니는 전생에 천 (陳) 씨이고 진사 (進士) 였다. 산서 (山西) 성 홍동 (洪洞) 현의 현령 (縣令) 으로 있을 때 흑형으로 남을 괴롭히기 좋아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죽은 후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다. 염라대왕은 그가 다음 생에 여자로 환생하여 23년간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각종 고통으로 전생에 지은 죄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가구의 할머니가 7~8 세 때 산동에 성이 왕 씨인 관리가 그의 집을 지나갔다. 할머니가 그를 보자마자 “왕년우 (王年友), 천모 씨를 아직도 아는가?” “년우”는 전생에 그와 한해에 진사에 합격한 수험생이 었다.

왕 씨는 차를 세우고 이가구의 할머니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천 씨 현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 관리는 현령이 회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가구의 할머니에게 그를 위해 한 폭의 난 꽃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가구의 할머니는 손이 불구여서 붓을 잡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보응의 진실에 감탄하며 서로 눈물을 흘렸다.

몇 년 후, 이가구의 할머니는 얼굴에 곰보와 목에 흑이 생겼다. 시집간 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 스물세 살에 혈붕 (血崩) 으로 죽었다. 이가구의 할머니는 전생에 현령으로 고문하기 좋아해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전생의 죄를 갚아야 했다. 인간은 미혹 중에 인과 응보를 보지 못하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 2. 청년의 마비와 소녀의 골 결핵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Edgar Cayce, 1877-1945) 는 미국에서 특이공능을 가진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다. 최면 상태에서 병을 진찰할 수 있는 그는 사람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평생, 병에 걸리게 된 사례 1 만 4306 개를 해명했는데 병에 걸린 원인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긴 것을 발견했다.쁜 짓을 하면 나쁜 것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것들은 윤회, 환생해도 피할 수도, 땔 수도 없으며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가 해명한 사례 중, 마비된 청년이 있었다. 열여섯 살 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척추 아래가 의식을 잃어 매일 휠체어를 타야 했다. 7년 넘게 재활치료를 했지만 모두 효력이 없었다. 스물세 살 때 그의 어머니는 케이시에게 병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마비가 된 청년의 두 번에 걸친 전생을 돌이켜 보았다. 처음 전생은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로마 병사였는데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를 즐겼고, 기독교인 박해에도 가담했다. 바른 신앙을 박해하여 죄를 지었고, 다시 윤회 환생하여 현세로 이어졌다. 현세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치료해도 그를 치유할 수 없었다. 전생에 지은 죄는 교통사고로 벌을 내려, 그가 마비된 상태에서 전생의 업을 갚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고관절 결핵으로 모진 고통을 받는 소녀가 있었다. 케이시는 그의 전생을 해독했는데 그는 로마제국 네로왕조의 귀족이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경기장에 넣고 사자에게 물어 뜯기도록 명했다. 그 소녀는 한 젊은 여자아이가 사자에게 물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연민의 마음 없이 순교자의 고통을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 그의 고관절 결핵은 그가 기독교인이 고통을 받을 때 웃어, 벌을 받은 것이다.

사람은 선량하고 동정심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자기 주위에 불행하거나 불공평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비록 도와줄 능력이 없더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하며, 남을 비웃거나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불운을 가져오게 된다.